

제주산 한우생산비 절감 및 시장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 태 속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동물자원과학과

A Study on Reduction of Hanwoo Production Cost and Market Differentiation Strategy in Cheju

Kang, T. S.

Department of Animal Biotechnology, College of Agriculture,
Cheju National University

I. 서 론

1997년 11월말에서 '98년말까지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 여파는 도내의 양축 농가들에게는 참기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이다.

도입사료원료와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 압박은 축산업을 포기해야 되는 위기까지 이르렀으나 정부나 축협 등의 사료수급 안정과 원료조달에 힘입어 현재에는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이전 수준까지 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 한우사육 농가에서는 토지 경합으로 인한 임대료의 상승과 교잡우의 한우대체 자금지원이 중단, 송아지생산기 지화의 보류 등은 제주한우산업의 앞날

에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으며 냉혹한 시장개방하에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래전부터 제주축산 발전에 장애를 주는 요인들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중산간 지대에 있는 목장들 가운데 절반이상(65%)이 외지인 소유로서 축산업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제 2001년 1월에 관세 41.2%로 쇠고기와 생축이 전면 수입개방을 이제 불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에 대비한 수입쇠고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향상 노력과 함께 가격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하향 안정되어야 하는데 과연 국제 가격의 수준에 도달 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이 갖추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 마을 공동목장과 중산간지대의 광활한 목야지와 기후적, 지리적 조건이 타지역과는 달리 축산업을 하기에는

이 논문은 1999년 10월 8일 농촌진흥청 제주 농업시험장에서 발표한 '제주산 한우고기 생산비 절감 및 시장 차별화 방안'을 수정 보완한 것임.

천혜의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실지 축산기반 조성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고 자본투자 역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제주축산은 자원보존차원에서 레저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된 사업으로 전개되어져야하며 새 천년(2010년까지)의 국제자유도시화에 걸맞은 축산업의 목표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새 천년 국제자유도시화가 되었을 때 수백만 관광객들이 우리 제주도를 찾아 올 때 과연 어떤 특화된 축산상품으로 하여금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여러 양축인들과 관련분야 사람들의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새로운 시장차별화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함으로써 우리 축산의 위상을 어느 정도 높여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본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마을 공동목장과 국공유지를 최대기반으로 한 천혜의 자연적 유리성과 특성을 살려 축산물 생산을 특화하고 안정화, 고급화, 저렴화에 주력하여 제주지역 한우고기의 차별성을 극대화 할 수만 있다면 국내시장의 확보는 물론 가까운 일본시장을 비롯한 해외시장까지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이 지역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발표는 제주지역 한우산업의 타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은 없는지를 구상해 보고 또한 한우 송아지의 생산비와 번식우의 사육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검토한데 있다.

II. 한육우 사육현황

1. 제주지역 한육우 사육과 변천과정

1957년 국립 송당목장이 개설되면서 외국에서 육우품종(브라만종 등)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의 육량을 높이기 위하여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 현 제주농업시험장(제주축산시험장), 도축산진흥원(도축산개발사업소), 전·기업목장(제동, 이시돌, 건영, 송당 등) 등에서 외국으로부터 많은 육우품종(6~8개품종)이 도입되면서, 제주 한우 연구사업과 시험사육이 시도되어 왔다. 그간에 한우와 브라만종, 산타종 등을 교배하여 신품종인 코브라(한우×브라만), 코산(한우×산타) 등의 신품종을 작출, 양축농가에 보급되어 정착되기 전에 샤로레 품종이 등장하면서 타 품종보다 육량과 육질면에서 생산성이 높고 방목사육에 적합하므로써 농가로부터 선호하게 됨으로서 자연히 신품종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80년대 접어들어 쇠고기 수입과 병행하여 생축이 농가에 도입 입식하여 사육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사육환경에 적응치 못하여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간에 육우품종들이 도입되어 한우의 개량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농가의 소득 측면에서는 많은 공헌을 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90년대초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육우 중 교잡우는 대부분 샤로레 누진교잡우로 사육되어져 제주지역

환경여건에 적합한 품종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WTO(국제무역기구)체제 출범 이후 국제화, 개방화에 한우의 존재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고 2001년 수입 쇠고기와 생축에 맞서는 품질고급화와 가격 저렴화, 식품의 안정화에 정부차원에서 많은 시책을 내놓게 되었고 이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93년부터 한우마을 조성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14개 마을 590두 입식)되었으며, '96년 7월부터 실시된 쇠고기 도체등급제는 한우와 제주육우(교잡우)를 시장 차별화하는 결과가 되었고 이로 인한 내륙지방 비육농가의 교잡우 송아지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교잡우 처리에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97년도에 정부차원에서 “소 산업 발전대책”에 반영되어 본도 교잡우 처리를 실시하였으나 불행하게도 97년 11월에 불어닥친 외환위기파동은 우리 축산시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간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업규모 확대사업과 한우입식과 교잡우 수매사업, 송아지생산기지화사업에는 차질을 빚게 되는 등 그간에 많은 여건변화는 앞으로 소 사육농가에 조사료 확보문제와 제주육우(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데 어려운 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Ⅲ. 한육우 산업의 현안과 과제

1. 사육규모 확대에 따른 초지기반 확보 문제

한우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초지 생산기반 확보이다. 송아지 생산비와 시장차별화에 있어서도 이들 조사료 생산기반을 토대로 한 우량한 형질의 송아지를 어느 정도 싼값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주한우의 생존전략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제주도는 중산간 지대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목장용지는 1,204ha(3,612천평)이고 개발하지 않고 방치된 야초지는 7,206ha(21,618천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있다(1998.4.25일자 제주일보).

이와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방치되고 있는 유휴 목장 용지 및 야초지로 인해 조사료 자급기반 확보 및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에 차질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기반을 갖추기 위한 도내 중산간 지대 유휴지에 초지를 조성하여 조사료 확보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한우와 육우(교잡우)의 대체문제

'97년도 9월 제주도가 발표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제주도, 1997. 9)을 보면 교잡우를 전량처리, 제주가 한우 생산기지로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그간에 도체등급제 실시 이후 한우고기와 교잡우 고기의 시장 차별화가 심화되고 교잡우 구매자가 격감되고 생축 출하시 물류비용의 증가 등 교잡우

가격의 떨어짐으로 인해 교잡우 사육농가들은 큰 타격을 받아 양축 의욕마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교잡우를 한우로 전면 교체하는 한우산업발전대책을 시기 적절하게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제주도는 농림부가 “한우 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을 승인하였고, 1천 2백여억원을 전액 지원함과 동시에, '99년도까지 교잡우를 전면 한우로 대체하는 교잡우처리 대책을 발표했으나 불행하게도 '97년 11월에 IMF한파는 이들 사업을 정부수매중단('98. 8. 31)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몰고 와 아쉬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이 계획기간에 송아지 생산비 44%와 비육우 생산비 29%를 절감하는 제주형 한우사육 모델이 정립되어 농가에 보급, 제주한우에 대한 시장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계획을 세워 놓기도 하였다.

앞으로 “한우와 교잡우를 대체하는 문제와 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은 제주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서 농림부와 절충을 하여 재추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한우의 사육두수는 15천여두에 불과하여 대체해야 할 교잡우는 2만여두에 달하고 있다.

3. 한육우와 토지 경합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문제

중산간 지대에 초식가축과 경합되는 사업은 감자농사와 골프장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초식가축 사육을 하는 농가에서는 많은 문제점 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1) 감자재배의 경합

우선 중산간 지대 감자재배를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4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경사지에 감자를 재배함으로써 토양유실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는 화학비료와 농약살포가 과다하여 지하수에 오염원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초지기반에 감자를 심고 있으므로 경합하고 있다. 네번째는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뿐더러 지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 사항들이 우리 축산인으로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4~5년 전에 시작된 감자재배농사는 포크레인, 불도져, 트랙터를 동원한 투기성 농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8월에 내린 비로 엄청난 토양유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IMF 이후 축산업이 위축되고 2001년도에 소와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앞둔 시점에서 초지기반인 사료포를 감자재배농사로 전화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에도 큰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임대료 인상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투기성 업자들의 농간에 의해 작년에 평당 100~200원 이내에 불과했던 임대료가 올해에는 400~600원대로 상승하여 초식가축 사육농가들의 임대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축산을 포기해야 하는 단계에

지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자농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산간 지대로 옮겨오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골프장 시설과의 경합

골프장 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도내 골프장 개발 사업에 활기를 띄고 있다. 현행 18홀 기준 108km²(327천평)를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한 골프장 면적 규정을 폐지하고 부대시설도 스스로 판단해 시설할 수 있도록 완전자율화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6개소 외에 5개 골프장이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15개의 골프장이 건설 사업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들어선다면 도내 골프장은 26개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골프장 개발 사업의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고용확대, 도, 시·군의 세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반면 양축농가의 조사료 생산기반 뿐만 아니라 사육기반의 위축은 우리 축산인들에게는 의욕 상실과 생산비 부담을 크게 가중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제주도 관광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유치를 유치하고 도시군 지자체의 재원마련과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나 제주도에서 주장하는 선보장 후개발 차원에서 볼 때 몇가지 문제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골프장과 경마장은 100% 소비사치 산업으로 오늘에 3D(Dangerous 위험하고, Dirty 더럽고,

Difficult 어려운)기피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도민정서와 젊은이들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IV. 제주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1. 제주산 한우고기 생산비 절감

1) 조사료 생산 확보방안

제주한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한우사육 번식 기반인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의 추진과 조사료 자급확보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지난해 IMF 한파를 넘기면서 생각했던 것은 제주지역이 그나마 다행한 것은 대부분의 목장들이 어느 정도 조사료 확보가 되어 있고, 농가에서 농산부산물인 비사품 감귤, 당근 부산물 등을 가축사료화 함으로써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제주지역은 타 지역보다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좋을 뿐더러 최근에 와서는 포크레인, 트랙터 등 기계장비가 많이 도입되어 있어 쉽게 개간작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해 초지 조성 작업은 한결 쉬워지고 있다.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마을공동목장, 국공유지, 외지인 소유 미활용지 등을 개발 조성하여 조사료를 최대한 생산 이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수입개방이 이제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한우의 생

존전락을 한우 쇠고기 생산비 절감방안으로서 목장 자체내에서 생산한 조사료를 값싸게 확보하는데 있다. 두번째는 한우 송아지 생산비와 비육우 생체 kg당 생산비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느냐 하는데 있다. 작년 농림부에서 송아지 두당 생산비를 조사한('98년도) 결과를 보면 한우송아지 두당 평균은 1,405천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전체 생산비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목이 사료비로서 47.1%(703천원), 다음이 자가노력비로 18.2%(270천원), 고정자본이자 17.0%(252천원)로 이들 3개 비용항목이 전체의 8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비용 중 고정자본이자를 제외한 비용절감은 사료비와 노동비를 줄여야 할 것이며, 비육우의 경우 생체 kg당 생산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항목은 가축비와 사료비로 각각 38.6%, 38.0%, 자본이자 10.1%, 자가노력비 6.5%를 차지하여, 가축비와 사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사료비중에 조사료를 어떻게 값싸게 생산하여 한우사육농가에 공급 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이다. 또 한가지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부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를 생각해 볼 때이다.

여기에서 대안을 3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마을 공동목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국공유지, 외지인소유목장 미활용지(장기 임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료 증산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중산간지대에 감자재배농가의 실태를 파악하여 감자의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2-3년 휴간시에 목초 및 사료작물을 대체 파종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부산물인 비상품 감귤이나 감귤박, 전분박, 당근과 줄기 등을 사료로 확보, 가축사료화(TMR)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두번째 방안은 2-3년전부터 중산간지대에 수십만평에 감자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10,000ha의 감자재배 면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부문에 중산간 지대에서 생산되는 농산부산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했을 때 축산농가에게는 많은 사료비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다. 도내에서 얻을 수 있는 감귤박이나 유채박, 전분박, 당근줄기와 비상품 당근, 해초류 등은 가축사료로 널리 이용되었던 농산 부산물인 것이다. 공해유발을 할 수 있는 박류를 가축에 이용함으로써 공해방지는 물론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약을 피할 수 있다.

3) 한우단지의 경영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 정부자금 지원단지의 경우에 대한 경영기록 관리 및 상담지도를 의무화
- 정부자금 지원단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지원으로 조속한 시일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여 단지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경영기록 관리 및 상담지도의 의무화를 할 필요가 있다.

- 개별운영단지는 가능한 분야부터 협업화 또는 공동경영으로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료 생산, 단지 전체 방역 등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협업화를 유도하여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점진적으로 단지의 공동운영을 하도록 되어져야 할 것이다.
- 사양관리 및 시설 운영기술 제고
 - 기업형 축산경영에 맞는 기술과 지식전수를 위한 각종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상담지도를 통한 자질향상을 꾀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
 - 단지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전 검토시 일정규모의 사료포를 확보토록 하여 농후사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2. 한우고기의 시장차별화 방안

세계시장 개방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경우는 2001년 1월부터 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자유로워지고 가격면에서 한우고기보다 2-3배나 싼 수입쇠고기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국내산 쇠고기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사육여건이 불리하여 생산비 지출이 높아질 뿐더러 한우고기 가격으로는 수입쇠고기와 경쟁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

그러나 한우고기는 품질면에서 수입쇠고기 보다 육질이 좋은 비육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육 특성에 따른 사양관리

를 체계적으로 한다면 고급육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한우고기를 생산하여 완전개방 전까지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를 차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고급한우고기의 인식을 시켜주는 길(브랜드화)만이 품질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한우고기 시장 차별화는 수입육 보다 품질이 월등히 우수하여 더 많은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 국내 한우고기 브랜드 현황

최근 들어 소득이 증가되면서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특히 양보다는 질에 관심을 두게됨에 따라 품질의 차별화 또는 기능성을 가미한 축산물의 브랜드(brand, trademark)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는 축협을 비롯하여 고급육 생산 농가가 직접판매장을 개설하거나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한우고기를 브랜드화 하여 전문판매점에 출하함으로써 자기 제품이 신용도를 높이고 유통마진을 농가가 소득화 하여 안정적인 비육경영을 하는 농가들도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생산방법, 성분, 규격, 위생, 취급방법 등에서 동질적인 상품과 차별화 해야만 가능하다. 축산물의 경우 사료에 첨가제를 섞거나, 특수 사료를 급여하여 품질을 차별화 한 것, 기능성 상품으로 하거나, 거세 등 사육방식을 달리하여 품질을 향상함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한우고기의 경우 각 지역별로 이미 상당한 정도로 브랜드화 하여 유통되고 있다. '97년 3월 축협중앙회 조사자료에 의하면 브랜드화된 한우고기는 전국 59종으로 보고 되어 있으나 상품등록 된 브랜드는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우쇠고기의 경우 널리 알려진 브랜드로는 강진맥우, 안동황우, 양평의 개군한우, 남해의 화전 한우, 평창 대관령한우, 안성맛소와 보성녹우, 무안양과한우 등이 있으며 많은 농민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우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인식부족과 브랜드에 걸맞는 고급육을 생산하지 못하는 등 여러 이유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광호, 박민수, 1999).

일본의 축산물 브랜드도 오래 전부터 전국에 200여개로 화우고급육을 중심으로 브랜드화 되고 있다. 일본 역시 1991년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화우의 생존을 위해 품질을 고급화하여 브랜드를 붙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의 쇠고기 브랜드는 지역 농협이나, 육가공회사, 체인스토어 등에서 지역 이름, 회사이름, 품질 또는 특수사료 이름 등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일본의 유명 쇠고기의 브랜드의 특징은 우량송아지를 밑소로 하여 양질의 사료로 장기 비육한 후, 최상급의 쇠고기만을 선별한다는 것이다. 이런 브랜드는 육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품질이 균일하며, 문제가 있을 때 추적할 수 있도록 생산자 이름, 주소 등을 제시

하여 소비자가 믿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한우고기 브랜드화에서 브랜드 한우고기의 생산 방식을 보면 대개 생후 4-5개월령 체중 120-150kg의 밑소를 구입하여 약 20개월간 육성, 비육 시켜 24-25개월령 체중 600kg 내외일 때 출하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2) 시장 차별화 방안

최근 들어 수입쇠고기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많은 발표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한우의 수송아지 거세에 의한 고급육을 생산하여 브랜드화를 통한 시장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동일한 한우품종에 일정기간 거의 같은 사료와 비슷한 비육기술을 동원해서 고급육을 만든다면 그것이 차별화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우라는 대상 축은 같지만 같은 소에서도 조숙조비한 개체가 있을 수도 있고 농가마다 급여하는 사료나 체계 및 사육기술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차별화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 육류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한우 고급육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기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들의 현세대의 소비자는 등급사가 판정하는 고급육을 선호하겠지만 다음 세대의 소비자는 꼭 그렇지 않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방 함량이 많은 고기보다는 지방이 적고 부드러운 고기를 선택하

고 있으며 이는 본인들이 식생활은 물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주지역에서 소 사육형태는 내륙지방에서 사육되고 있는 형태와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번식우의 경우는 마을 공동목장, 한우단지, 본인이 소유한 목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내륙지방의 사사형태나 청초 예취급여 형태와는 큰 차이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은 내륙지방보다 방목여건이 유리하고 방목기간도 길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서 제안을 한다면 한우최고기의 시장 차별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번식 농가에서 생산되는 송아지의 자질인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의 확보를 토대로 하여 일관 또는 비육사육을 통하여 그 지역에서만이 생산되는 사료자원을 활용하여 고급육을 생산하고 브랜드화 하여 직거래 체계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지역에서 번식사육의 경우는 방목 내지는 조사료위주의 사양관리로서 사료비와 인건비 등을 절감시키고 우수한 종축의 정액으로 계획교배에 의한 번식우와 송아지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수한 비육송아지 생산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육질이 우수한 종모우의 선발이다. 비육의 경우는 우수한 송아지를 기초축으로 하여 육성기(10개월령)에는 방목위주로 조사료 의존율을 높여주고 성장단계별인 10-16개월령에서는 체중의 1.5%에 농후사료급여와 조사료로 충당하고, 17-24개월령에 달할 때 농후사료, 조사료를 자유채식시키는 비육체계

로 가는 것이 농가에서 일관 비육 형태(조농비 20:80)보다 조농비(40:60)가 낮아 사료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오운용 등, 1992).

(1) 제주산 흑한우의 지역특산품화로 시장 차별화

제주 고유의 흑한우가 비육 시험 결과 최고 등급판정(406만 5천원)을 받아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도체등급 판정 결과 거세 한우의 경우는 도체에 지방이 두껍고 넓으나 제주 흑한우는 일반 한우 암소보다 지방이 가늘고 섬세하며 견고한 형태로 살코기 전체에 분포되어 일본 화우육에 비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도내에서 사육 시험되고 있는 흑한우(50여두)는 인공수정이나 수정란이식 등의 방법을 이용해 한우, 교잡우 등에 무한 증식시키는 방안이 도축산진흥원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외 한우와 시장차별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연구하여 제주산 한우 고기의 시장 차별화 전략품목으로 추진하여 한우단지와 연계한 보존증식 관리 사업을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2) 제주한우 대일 수출

제주산 한우의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과 시장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98년 11월 16일) 거세한우 10두를 지육상태로 첫 일본 동경에 수출하였으며, 2차로 올해('99년 5월) 아일랜드 무역회사와 계약 체결한 후 한우 12두를 지육상태로 수출

하여 대일 수출에 가능성을 타진하여 시장을 열어놓았으나 국내 산지 소값이 급상승으로 도내 사육농가에서는 국내 출하를 선호하여 어렵게 수출 시장의 문을 열어 놓고도 추가 주문된 물량마저 공급하지 못하여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산 한우고기의 대일수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전체 농가들이 다시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3) 식육점에서 쇠고기품종 표시제와 가격표시제

한우 교잡우, 젓소 등 쇠고기 품종표시와 등급별, 부위별 가격표시는 최종 도내에서 생산된 한우고기가 시장차별화를 기할 수 있다.

일반 식육판매점에서도 한우, 젓소 등 품종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쇠고기를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합동으로 관내 식육판매업소 356개소 중 56개소를 점검한 결과 몇몇 업소에서는 국내산 쇠고기 판매를 하면서 한우, 교잡우, 젓소 등 품종별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와 등급별, 부위별 가격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곳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육과 젓소, 육우고기가 한우로 둔갑판매가 성행하여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한우고기 판매체계가 미흡한 상태에 있어 앞으로 수입쇠고기는 물론 제주 한우고기의 상품차별화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며, 소비자의 고발 유도와 축산물 식별과 안정성 등을 교육,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육류수출협회(U.S.Meat), 호주 육류협회 등에서는 자국산 육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책자(유인물 등), 시식회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 고객이 한우고기를 찾지 않는다면 경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맛 좋은 제주 한우고기를 선보일 때이며 제품소개와 시식회 등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한우고기 전문점을 통한 차별화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한우 전문점을 고품질 한우육 취급전문점으로 전환하는 문제이다. 정부의 한우산업 정책이 고품질 차별화 정책이라면 한우전문점의 운영방침도 여기에 맞추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우고기만 취급한다고 하면 된다는 식의 한우전문점의 육성은 한우고기 고품질 차별화 정책에 역행하는 길이 될 것이다.

또 한가지는 한우고기 품질 차별화를 위해서도 냉장육 유통체계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도축, 수송, 판매 시설의 현대화는 불가피하며 소비자들에게 축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우고기의 HACCP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쇠고기도 냉장육 체계를 갖추고 시장을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경

쟁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쇠고기의 부위별, 등급별로 소형포장으로 슈퍼마켓 판매 체계로 전환함과 동시에 브랜드 개발을 활성화하고 산지와 축산물 한우 판매장과 직거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주인인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는 물론 유통과정에서 중간 마진을 최소화하여 산지가격의 소비자가격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차별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한우고기의 품질 차별화

한우고기의 차별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번식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송아지의 자질문제이다. 동일한 우사, 사료 및 사양조건 하에서도 최종 산물인 도체 경락가격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앞으로 송아지 유전능력에 따른 차별화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내에서는 도축산진흥원에서 분양된 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의 경우 체형의 발달이 좋고 등록되지 않은 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와 비교시 차이가 있음을 볼 필요가 있다. 한우도 고급육의 자질이 있는 송아지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정액 선택시 계획교배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다. 왜냐하면 정액의 유전능력에 따라 한우고기 생산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환경조건하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도 비육 대상우(밀소)고급육 생산능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한우산업은 초지 기반을 중심으로 한 목장(경영업체)에서 자질이 우수한 혈통의 송아지를 생산 출하하고 비육농가는 혈통에 기준하여 우수한 송아지를 구매하여 고급육을 생산하는 품질위주의 체제가 갖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금의 확보와 송아지 생산 안정 가격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현실화된 지원책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번식 농가에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제주지역 한우 번식농가의 사육규모 두수는 21.8두로 우리나라 평균 5.4두에 비해 4배 이상 많이 사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전업규모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고 단지를 중심으로 번식농가를 대상으로 한 한우개량방향에 알맞는 비육대상우(밀소)를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좋은 밀소를 생산, 비육하여 판매하는 농가는 좋은 육질등급으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제주 한우사육형태를 유기축산으로 방향 전환

지난해 IMF 한파에서 큰 타격을 받은 축종은 농후사료 중심의 양계, 양돈 등의 축산업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생각된다. 특히 제주지역 토지이용형태는 밭작물인 감귤, 채소류 등에서 비료, 농약 사용은 전국 소비량보다 2배나 더 많은 양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 가축이 부산물인 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화나 액비 자체를 숙성해 살포함으로써 토양의 비옥도를 높여줄 수 있어 농약과 비료로 인한 수질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주 축산업의 가야할 방향은 초자원을 활용한 무공해 축산물생산으로서 유기축산(Organic Foods)¹⁾을 통한 한우 사육형태로 가는 것도 2000년대 국제자유도시화를 대비한 제주 축산의 방향의 하나이며 이를 집중 연구 검토 해 보아야 할 과제로 지적하고 싶다.

4. 국제 자유도시화에 대비한 제주 한우고기 우수성 개발

국제자유도시는 「일반적으로 관광, 쇼핑, 물류, 교육, 정보, 금융 등을 제반경제 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도시 공간으로서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의미.」(우근민 제주도지사, 1999)하며 수입자유화와 무관세 수입 허용을 촉구하게 됨으로서 제주 농축산업의 판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축산분야에서는 경마, 승마 등 축산관련 관광시설을 이용한 즐길 거리 제공 및 기존 축산 단지 등을 이용한 관광벨트화 개발이 가능 할 것이다. 특히 제주는 광활한 초자원을 갖고 있어 초식 가축 사육에 유리하며 지리적으로 격리된 지역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재래가축인 흑한우 등을 유전자 자원 보존과 새로운 육종 개발을 통한 증식개발연구에 목표를 두어 품종을 특화함으로써 수입 축산물인 쇠고기와 품질 차별화를 시도 하여 고품질 위생축산물을 생산하여 축산물의 HACCP-FCG를 브랜드화 함으로서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를 높임으로서 양축가에 이윤을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제주 지역 청정화 선언을 국제적으로 인정했을 때 특화된 제주산 한우고기는 세계화가 될 수 있으며 이는 HACCP 고품질 위생축산물이며, 안정성을 인정받는 축산물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제주산 축산물인 한우고기는 가공, 유통단계 이르기까지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주의 청정지역을 상징하는 제주형 FCG 브랜드화로 시장 차별을 기하는 길만이 제주 한우를 살리는 길일지도 모른다. 특히 제주지역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제주에 찾아왔을 때 축산 환경이 좋지 않아 나쁜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축산분뇨는 유기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서 신선한 과일, 채소류를 제공함은 물론 흙살리기 운동과 연계한 축산 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 유기축산이란 사료자급 수준의 토지를 확보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퇴비 및 유기질 비료를 그 토양에 투입해서 사료와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가축을 사육하며 가축 사육과정에서 가축 부위 일부 제거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보조사료와 첨가제 급여, 유전자 조작, 수정란이식, 성장호르몬제, 동물약품(전염병 예방은 제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기른 가축으로부터 축산물을 생산하는 이른바 자연농법에 의한 축산을 말함.

V. 결 론

이제 쇠고기와 생축의 전면 수입개방을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한우 산업의 미래를 점쳐 보며 그래도 제주 축산은 미래에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발표자는 생각해 본다. 우리들에게는 그나마 “마을 공동목장”이라는 조상대대로 물려준 한우의 번식기반과 오랫동안 생활수단으로 영위해 온 송아지 증식 기술과 비육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신기술을 접목하여 비육한다면 시장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최근에 와서 재벌들의 골프장 소유로 토지가 잠식되고 투기적인 감자재배 농사 등의 경험들은 축산농가에서는 IMF를 두 번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 특히 한우 번식우의 경영비에 압박을 가증시키는 것은 임차료나 사료비가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축산인들의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서로가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도 기어코 해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때 타 축종보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제주지역에서 한우고기의 생산비 절감과 시장 차별화는 값싸게 비육시켜 소비자들에 안전하고 맛있고 선호도가 높은 고기(고급육)를 제공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값싼 우량 한우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번식기반 확보(생산비 절감) ⇒ 일관 또는 비육사육을 통한 ⇒ 고급육 생산(HACCP) ⇒ 제주형 FCG

브랜드화로 시장차별화 ⇒ 청정·신선 한우고기 판매체제 확립이 될 것이다. 끝으로 제주 한우고기의 고품질 차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초지기반이나 등록 한우를 기초축으로 한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고 생산된 송아지를 거세하여 유전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양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주는 2000년대 국제 자유도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한우산업 분야를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에 두어 제주가 자랑하는 청정, 한우고기를 “제주형 FCG 브랜드화” 하여 공급하는데 산·학·연·관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의 고유한 한우를 지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고종열, 고급육생산을 위한 올바른 사양관리, 축협축산월보, 1996.4.
2. 권오욱, 한우사육의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8권 제1호, 1992.
3. 권오욱, 비육우 경영의 한·일간 비교 분석, 축협축산월보, 1996.2.
4. 권오욱, IMF위기극복을 위한 한우산업의 생존전략, 축협조사월보, 1998.1.
5. 김인식, 한우가격 안정화 방안과 향후 전망, 고품질 쇠고기 생산을 위한 한 일 기술 세미나, 1997.5.17.
6. 김일석, 대일 한우 및 한우육의 수출 가능성 검토와 품질특성, 한우산업의

- 국제적 위치와 수출전략, 1999.4.
7. 김정주, IMF시대의 한국축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98 한국 축산분야 학회협의회 추계 심포지움, 1998.10.
8. 김태형, 제주 한우 일본 수출 차질, 제주일보, 1999.9.26일자
9. 오운용, 고능력 육우 개량 및 양질육 생산 연구, 제주농업시험장 시험연구 보고서, 1995.
10. 우근민 제주도 지사, 국제자유도시와 제주도 농수축산물의 미래, 농수축산물 유통전문가 과정 강의 교재, 1999.7.
11. 이관용, 정부의 낙농 및 한우 산업의 정책방향, 축산정책, 1997.5.
12. 이문연, 한우육의 브랜드 현황과 과제, 1996.12.20.
13. 이문연, 한우생산의 경쟁력과 미래, 미트저널, 1999.9.
14. 이병오,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 축협조사월보, 1997.5.
15. 이상영, 한우고급육생산을 위한 브랜드단지 육성방안 연구, 농진청 1996년 연구사업보고서, 1997.
16. 임성준, 쇠고기 품종 표시 않은 식육점 적발, 제주일보, 1999.9.24일자.
17. 유철호, 한국농업에 있어서 축산업의 중요성과 전망, '98 한국 축산분야 학회협의회 추계 심포지움, 1998.10.
18. 윤철수, 골프장 시설 운영 모든 규제 풀린다, 제주일보, 1999.5.27일자.
19. 장호열,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확정, 고급육생산 산업으로 집중육성, 제주일보, 1997.9.18일자
20. 조광호, 박민수, 한우 쇠고기 차별화/상품화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5권 제1호, 1999.6
21. 조석진, 한우 및 화우의 차별화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0권 제1호, 1994.
22. 제주도,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송아지 생산기지화 방안), 1997.9.
23. 제주도, 축산업 진흥계획, 1998.8.
24. 한문성, 제주산 흑한우 육질 최고등급, 제주일보, 1999.9.10일자